

한글장편소설 여성인물의 비혼(非婚)에 대한 희구(希求)

-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

고은임*

- I. 서론
- II. 유교적 질서 내의 비혼 욕망: <쌍천기봉>
- III. 도교적 사유에서 비혼 가능성: <보은기우록>, <임화정연>
- IV. 조선 현실에서의 비혼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의 여성인물에게 나타난 비혼(非婚)에 대한 바람과 그 바람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피고, 작품이 향유되었던 조선사회 비혼의 양태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추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중심인물 서사를 통해 그러한 지점이 강조된 장르, 한글장편소설에 조선시대 부정되고 불온시된 비혼에 대한 희구(希求)가 드러나 있는데, <쌍천기봉> 중심인물인 장옥경, 소월혜에게서 비혼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간취된다. 이들은 유교적 교양을 함양한 높은 신분의 여성인물로 결과적으로는 혼인제도에 편입되지만, 진지한 태도로 강렬하게 비혼의 삶을 희망한다. 한편 반동, 보조인물군에서 비혼을 실현한 여성이 있는데 <보은기우록>의 설소아, <임화정연>의 석가월, 조옥연이 그들이다. 이들은 혼인의 삶을 거부하고 도교에 귀의하여 독자적인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조선의 현실은 소설 속 세계와는 달리 비혼을 불운하거나 불온한 것으로만 취급했다. 특히 주체적이며 적극적 태도로 비혼을 선택한 천주교 신자들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강사

은 종교적 삶을 살기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 이러한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비혼 욕망이 소설에 투영되었던 것이고, 소설에서 그 욕망은 이해되고 공감된다. 혹은 환상적 설정이 가미되어 비혼이 정당하게 인정되기도 한다.

핵심어: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 한글장편소설, 비혼, 여성, 조선 시대, 유교, 도교, 천주교

1. 서론

‘비혼(非婚)’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혼(未婚)’이란 용어와 구별하여 ‘결혼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1990년대 고안된 용어이다.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로부터 여성을 하나의 개인으로 세우려는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획이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¹⁾ 비혼의 개념은 ‘결혼 경험이 없으며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범주화되기도 하며,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광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²⁾ 이 단어는 1990년대 고안되었지만 최근에는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삶의 한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오랫동안 인생의 필수요소라 여겨졌으며 결혼을 배제한 삶은 매우 특수한 상황, 이를테면 종교적 신념을 위한 특별한 결정, 혹은 어떤 결핍, 불온한 생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상황 안에서 현재 비혼의 쓰임새를 고려해볼 때, ‘비혼’은 인간의 삶에 있어 결혼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인생을 구성하는 다른 수많은 요소들과 같이 선택적 요소라는 인식 하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혼 생활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킨 삶의 형태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1) 박수민,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제29집 제4호, 한국가족학회, 2017, 95면.

2) 이성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79면.

따라서 비혼의 이유는 각자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다. 불교나 천주교에서 수도를 목적으로 독신의 삶을 사는 경우처럼 전통적으로 오래된 비혼의 삶이 존재하는가 하면, 여성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젠더수행에 대한 거부로 의 비혼, 결혼제도에서 부과되는 의무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독립된 개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비혼 등 다양한 동기가 모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³⁾

이로써 보면 비혼은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양태라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혼인과 출산으로 형성되는 가족관계에 근간을 둔 유교 이념을 토대로 한 사회였기에 혼인을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여겼다. 이처럼 조선시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그럼에도 조선의 소설에 소급해 적용해보려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은 삶의 양식에 대한 욕망이 소설 속 인물에게서 읽히기 때문이다. 아직 출현하지 않은 삶의 양태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구적 사유, 감정을 소설 속에서 읽어내는 작업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던 과거의 욕망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 그 욕망 자체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하여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조선에는 사회적으로 부정되고 배척당하면서도 종교적 이유로 비혼의 삶을 실현한 여성이 존재했다. 출가하여 여승이 되거나 천주교 신앙을 위해 동정의 삶을 산 이들이 그들인데,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나 주체적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주창했다는 점에서 비혼을 회구한 소설 속 여성들, 그들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소설 속 여성인물에게 간취되는 비혼에 대한 바람을 분석하고, 그 소설이 향유된 조선시대에 비혼이 갖는 의미와 그 실체를 검토하려 한다. <쌍천기봉>을 통해 한글장편소설에서 유교적 교양을 함양한 여성 주인공 인물에게서 나타난 비혼에 대한 회구를 분석하고, <보은기우록>과 <임화정연>을 통해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 여선(女仙)의 삶을 선택한 인물을 조명한다.⁴⁾ 그리고 조선의 현실에서 혼인하지 않는 삶이 실제로 어떤 양태를 띠었는

3) 박수민은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동기의 다양성에 대해 정리한 바 있는데, 비혼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동력은 결혼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보다는 자신이 체득해온 문화적 가치체계와 행위양식의 연장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수민, 앞의 논문, 96면.

지 아울러 살피는 가운데 조선사회 여성인물의 비혼 욕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교적 질서 내의 비혼 욕망: <쌍천기봉>

다수의 한글장편소설에서 혼인 전후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여성인물이 수난을 겪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이 오래도록 남편과 불화하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쌍천기봉>의 여성 주인공 역시 그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혼인 생활 자체에 대한 혐오, 거부감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이몽현과 결연하는 장옥경, 이몽창과 결연하는 소월혜에게서 그런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내면은 ‘비혼’을 욕망하는 데에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1. 쟁충 상황에 대한 혐의

이몽현은 장옥경과 정혼한 상황에서 계양공주와 늑혼하게 된다. 태후의

4)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한중연본 <쌍천기봉> 18권 18책, 한중연본 <보은기우록> 18권 18책, 필사본 <임화정연> 72책.

한편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의 개별 작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본고에서 조명하려는 ‘비혼’과 관련하여 혼인생활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선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 제9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장시광,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과 고통의 이면 - <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제3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탁원정, 『<쌍천기봉>에 나타난 여성연대와 자기표현-공주혼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허순우, 『<임화정연> 속 출가 이야기의 양상과 그 함의』, 『한국고전연구』 제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여성 형상 연구 - <임화정연>, <보은기우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43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강력한 요구로 이뤄진 이 혼인에 이몽현은 반감을 지닌 상태로 공주를 맞이하고, 파혼당한 장옥경은 수절하기로 결심하여 다른 가문의 청혼도 단호히 거절한 채 후원 옥호정에 기거하며 지낸다. 영문을 모른 상태에서 이몽현의 홀대를 받던 계양공주는 이부의 일기를 보고 혼인 전후의 상황을 깨닫자 죄인으로 자처하며 태후를 설득해 장옥경을 차위(次位)로 맞도록 허락받는다. 계양공주의 조치에 이부에서는 감동하며 혼례를 준비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장옥경은 혼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러 사람의 반복되는 권유에도 번번이 거절 의사를 보인다.

장옥경의 반응에 장부와 이부의 어른들은 인륜(人倫)의 대사(大事)라는 논리를 들며 당연히 혼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장옥경의 부친 장세걸은 재실로 혼인하는 것이 “일이 비록 깃브지 아니호”다며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람으로서 “인눈을 폐치 못홀” 일이니 “고이혼 의스를 먹지 말”라 명한다.⁵⁾ 여기에는 계양공주가 성덕(盛德)이 훌륭하니 혼인 후에 장옥경에게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란 긍정적 진단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장옥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한사코 거절한다.

① “쇼네 인륜 대의를 모르미 아니라 일이 임의 이리 된 후는 도시 쇼녀의 팔지라, 연분이 그만호니 또 엇지 춤남이 뜻을 방조히 먹어 부마의 직실이 되며 공쥬로 엇게를 골와 정총호리요? 쇼네 다병호니 스스로 고평호히 늙어 죽으미 지원이요 이지 성지 겨시고 공쥬 뜻이 아롭다오나 능히 정심을 도로히기 어려오니 원컨디 아야는 쇼녀 일 인을 죽으 니로 아라샤 뜻을 직회게 하시를 바라노이다.”(<쌍천기봉> 권6, 85면)

계양의 태도를 갖춰 온공하게 답하고 있지만 장옥경이 혼사를 거절하는 이유는 쟁총(爭寵)을 혐의하기 때문이다. 이몽현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적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장옥경이 쟁총을 혐의한다는 것은, 일부다처(一夫多妻)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자신의 능력, 혹은 노력과도 무관하게 발생할 법한 부조리한 상황에서 번뇌하며 구차히 살기 싫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벌열가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유교적

5) <쌍천기봉> 권6, 81면.

교양을 함양한 훌륭한 규수로서 무고하게 파혼당했던 혼처에 다시 재실로 들어가는 것이 장옥경에게는 결코 유쾌하거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데, <유씨삼대록>에도 이와 비슷한 설정이 마련되어 있다. 유세형과 혼인했다가 늑혼으로 파혼당하고, 이후 진양공주의 선처에 다시 유세형의 재실로 혼인하게 된 장혜앵에게서 특히 그 불쾌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잘 포착된다. 장혜앵은 자신의 자리를 뺏은 공주에게 도리어 재실의 자리를 허락해준 데 대해 예법에 맞게 감사 인사를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래야 하는 처지를 분한해 한다. 덕성이 훌륭한 진양공주의 캐릭터와 무관하게,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계략을 일삼는 장혜앵 캐릭터와도 무관하게, 장혜앵이 느꼈던 불쾌함과 억울한 마음은 그것대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이다.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애정 욕망에 초탈한 것으로 형상화된 장옥경은 장혜앵과는 다르게 그러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내비치지 않지만 장옥경의 처지는 장혜앵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장혜앵이 혼인 자체는 기뻐하며 그 불쾌감을 유부에서 진양공주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다면, 장옥경은 혼사를 폐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혼사를 거부하는 장옥경의 태도는 매우 완고하여 혼인을 강요하는 부친 장세걸의 엄명에 “죽기는 쉽스오나 니문에 드러가기는 못홀쇼이다.”⁶⁾라고 하거나, “출흘리 머리를 싸가 사름의 형테를 변혼죽 야애 엇지 강박하시리오”라는 생각을 하는 등 극단적 상황까지 상징한다.⁷⁾ 장옥경은 사양지심(辭讓之心)의 마음으로 황실의 배려에 겸양을 표하거나, 재실이 되는 데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혼인 생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은 황실과 공주의 거듭되는 청에도 완강히 거절하는 장면에서 한층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계양공주는 장옥경이 혼사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즈못 원네(遠慮) 김흐미니 그 뜻을 굵피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한다.⁸⁾ 이에 직접 표문(表文)을 써서 태후께 청해 장옥경에게 정국부인 직첩과 혼인하라는 내용의 조서

6) <쌍천기봉> 권6, 81~82면.

7) <쌍천기봉> 권6, 86면.

8) <쌍천기봉> 권6, 94면.

를 다시 내리게 한다. 그리고 혼인을 청하는 간곡한 내용의 서간을 직접 써서 옥호정으로 보내고, 전달하는 시종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옥호정의 하리(下吏)와 장옥경에게 온공한 태도를 잃지 말라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장옥경은 공주가 정성을 다해 보낸 태후의 성지와 서간을 받고도 거절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 태후의 직첩과 교지를 예법에 맞게 받들지만 감히 조서를 봉송치 못하겠노라는 내용의 소를 올리고, 뒤이어 받은 공주의 서간, 혼사를 거부하는 것이 예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인륜을 폐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청한 내용의 서간에 깊이 감동받지만 “서중 스의 다 도리의 합당하고 네의와 튥효의 다 올흐시니 엇지 맞드지 아니리잇고마는 천신의 막음이 흥진 물욕의 념이 꿈 갖트니 스스로 굽치지 못혀야 감히 존명을 맞드지 못”한다고 답한다.⁹⁾

장옥경은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상관없이 쟁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장옥경을 둘러싼 인물들, 부친 장세걸, 시부 이관성, 계양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컫는 논리, 즉 인륜지사(人倫之事)를 폐하는 것은 예에 합당하지 않다는 당위는 장옥경을 설득하지 못한다. 장옥경 역시 혼인이 인륜대사이며 자신의 행위가 반예교적이며 불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재상 가문의 여성으로서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산다는 것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모르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리(事理)와 체면보다 자신의 삶, 구차하지 않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혐의를 무릅써야 하지만 비혼을 선택할 경우에도 장옥경에게는 실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온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 부유한 재상 가문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옥호정에서 안온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파혼 후 장옥경이 거처한 후원 옥호정은 절경에 둘러싸여 어지러운 속세와도 단절된 곳으로 고요하고 정갈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장옥경은 이곳에서 시비들과 유유자적하게 시사(詩詞)를 섭렵하고 독서에 심취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옥골설뵈 더욱 윤택혀야 표연이 신션 ㄹ”은 삶을 산다.¹⁰⁾ 혼인하여 남편

9) <쌍천기봉> 권6, 118면.

10) <쌍천기봉> 권6, 76면.

과 적국(敵國)의 사이에서 구차하게 사느니 평생을 홀로 지내더라도 아름다운 후원 옥호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게 안온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인 것이다. 장옥경 입장에서는 안온하고 자유로운 현재의 삶을 중단하고 불쾌하고 번뇌 가득한 혼인 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장옥경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적국인 계양공주였다. 장옥경의 내면을 간파한 계양공주는 삼고초려(三顧草廬)하듯 여러 차례 설득하며 장옥경의 마음에 진심을 전한다.

② ‘(…) 초의 태낭낭 업지 쇼저로 공규의 늙게 하여 거시나 도금호여 뉘우츠 시미 간절호시고 첩이 쇼저 위한 므음이 신명의 질정홀 거시로디 쇼저는 감동호미 업스니 이 도시 적국 두 즈롤 구이호미라. 첩이 당당이 몸을 피호여 쇼저 므음을 평안케 호리니 쇼저는 엇지 너기느뇨? 쇼제 비록 번요호를 밀막으나 쇼제 당초 부모의 명으로 니군의게 도라올진디 또 번요호를 넘호라? 쇼저는 지삼 생각호여 첩의 어린 정을 도라보라. 첩이 이리듯 간절이 쇼저의게 청호여 쇼제 뜻이 호갈호틀진디 스스로 사롬 저버린 죄를 닦아 천추빅세 후 디하의 가 쇼저를 보와 사해호고 금세의 인눈의 춤예치 아니리니 이 첩의 평생 정심이라. 필연을 립호여 므움이 어리고 의시 삭막호나 쇼저는 첩의 브라는 므음을 도라 슬피미 천만 횡심이라.’호엿더라.<쌍천기봉> 권6, 121~122면.)

계양공주의 첫 번째 서간에도 거절의 뜻을 밝힌 장옥경 앞에 공주에게 특별 지시를 받은 시비 소영이 나선다. 공주가 청죄하는 뜻을 자신이 대신한다며 육단(肉袒) 청죄(請罪)하고 서간을 다시 올린다. ②에서 알 수 있듯 그 서간에는 장옥경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꿰뚫으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굳게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차라리 자신이 혼인 생활을 폐하겠노라 말하면서, 장옥경이 혼인을 하더라도 갱충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약속한다.

소영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공주의 간곡한 마음, 서간에서 읽히는 총명한 혜심(慧心)에 결국 장옥경은 마음을 돌이켜 혼인에 응하기로 한다. 계양공주라면 한 남편을 두고 쓸데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계약에 연루되는 일 따위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장옥경과 계양공주는 서로를 예대하고 도우며 지내게 된다. 이후 장옥경이 한차례

누명을 쓰고 태후의 명으로 출거당하는 고초를 겪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수습하는 데 앞장선 것도 계양공주였고, 장옥경의 출거 기간 그 딸을 사랑하며 양육에 힘쓴 것도 공주였다. 그 둘은 그렇게 서로 돕고 지지하며 지기(知己)의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로운 혼인 생활을 영위한다.¹¹⁾

결국 장옥경은 거부하던 혼인을 하고 혼인 생활에 잘 적응하여 지내지만 계양공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비혼의 삶을 고집했을 것이다. 태후의 명으로 파혼당한 상황에서 그는 뜻을 돌이켜 혼인하라는 황실의 명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혼인을 할 수 없었던 외부의 장애가 사라진 다음에도 혼인 이후 삶의 질을 가늠하며 스스로 혼인을 거부했던 것이다. 혼인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고심하고 선택하려 했던 장옥경의 태도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당대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결국 계양공주의 설득에 혼인 생활을 시작하지만 장옥경의 내면, 그의 태도에서 비혼의 삶, 혼인 이외의 다른 삶을 선택지에 두려는 바람이 간취된다.

2. 남편에 대한 혐의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소월혜이다. 소월혜와 이몽창의 서사는 제목 ‘쌍천기봉(雙鉤奇逢)’의 이야기 주인공답게 작품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의 갈등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데, 이몽창에 대한 소월혜의 원한이 <쌍천기봉>의 후편 <이씨세대록>에까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며 둘의 사이는 작품 전편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적 관계로 형상화된다.¹²⁾

소월혜는 자신의 집에 있는 팔찌와 쌍을 이룬 팔찌 소유자가 자신의 인

11) 탁원정은 장옥경과 계양공주이 지기(知己) 관계가 된다며 여성연대의 측면을 주목한 바 있다. 탁원정(2016), 앞의 논문.

12) <이씨세대록> 마지막 부분에서 황제가 이부 여성들을 초대하자 소월혜는 젊은 날의 고초를 겪어 마음을 쓰는 일이 생기면 발병하므로 황제의 초대를 고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몽창이 억측하며 책망하자 소월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서사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소월혜는 이몽창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탁원정의 논의 참고. 탁원정(2015), 앞의 논문;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 『고소설연구』 제4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6.

연이라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다. 혼기가 잘 무렵 느닷없이 자신의 처소를 엿보며 무례하게 접근하고 강압적 태도로 청혼하는 이몽창을 만나게 되는데, 비례한 그가 팔찌의 소유자인 자신의 천정연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된다. 소월혜의 시비는 이몽창의 수려한 외모를 보고 혼사에 기쁨을 표하나 소월혜는 꺼리는 마음을 솔직히 드러낸다. 쌍천의 인연을 짐작하고 그 운명을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그가 미려한 얼굴에도 금수(禽獸)의 행실을 한다면서 그런 광객(狂客)[이몽창]의 처(妻)됨을 원치 않는다 말한다.¹³⁾ 그러나 소월혜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례는 빠르게 치러진다.

그런데 이 혼인은 이몽창이 자의대로 불고이취(不告而娶)로 진행한 것이었다. 전처 상씨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길에 호광에서 소월혜를 보고 반한 이몽창이 조모 유요란이 가지고 있던 금천(金鉏)을 들고 호광 어사로 내려가 팔찌의 천정을 일컬으며 혼례를 치르지만, 기실 이는 이몽창 혼자 결정해 벌인 일이었던 것이다.

㉠ 드디어 방둥의 드러가 쇼저를 더하여 곱오디, “니 이제 성지를 벗즈와 경스로 도라가느니 존당의 슈하고 그디를 드러가리라.” **쇼제 성안이 2늘고 미워 석석하야 답디 아니니** 성이 필경은 노하야 쏘흔 묵연이러니 이늘 밤을 훔가지로 지니고 명일 쇼저를 니별홀시 다시 널오디 “그디 비록 수괴흐른 이시려니와 먼니 가는 가부를 더하야 중시 묵묵허려 하느다?” 쇼제 인스의 므지못하야 좀간 답고즈 헛디 츄믄 수괴홀 쏘 아나 전일 거조를 싱각하느니 분앙하미 압셔 입 열기를 주저허더니 성이 쏘 곱오디, “**니 브모괴 고터 못하고 그디를 취허엿는 고로 정의 롤 밋지 못하고 가느니 그디는 단둥하야 성의 거믄 니르거든 올지어다.**” 쇼제 강잉하야 답고즈 헛다가 크게 놀나고 더욱 증분하야 답디 아니니, (<쌍천기봉> 권7, 124~125면.)

혼례를 치르자마자 경사로 복귀하라는 어명이 내려지고, 이몽창은 ㉠과 같이 비로소 불고이취를 고백하며 훗날 데리고 가겠다 말하고선 떠난다. 이때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된 소월혜는 이몽창에게 더욱 증분(增忿)하게 된다.

13) “(...) 초인이 얼굴이 미려하나 그 마음인즉 금수의 형실이라 너 임의 더의 그물의 걸려서니 다른 성은 좃지 못허려니와 츄믄 그런 광객의 체 됴를 원치 아니노라.”(<쌍천기봉> 권7, 113면.)

게다가 이몽창은 경사로 돌아간 뒤 불고이취에 분노한 부모에게 장책을 받고 수습이 어려울 것 같자 재빨리 소월혜에게 절혼서(絶婚書)를 보내버린다. 소월혜에게 반하여 제멋대로 비례한 혼례를 치르더니 상대에 대한 신의마저 가볍게 저버린 것이다. 이에 소월혜는 혼서를 돌려주고 이몽창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이 차라리 쾌하다 말하며 냉소한다.¹⁴⁾ 더욱이 죽은 상씨가 나타나 소월혜가 이부에서 겪을 위기를 경고하는 몽사(夢事)를 통해, 이몽창이 자신을 후실(後室)로 취했으며 앞으로 그로 인해 고난이 펼쳐질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런 마음은 더욱 굳어진다.¹⁵⁾ 절혼에 대해 절망하고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몽창같이 비례하고 신의 없는 인물과 혼인하느니 차라리 절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혼의 삶이 낫다 생각한다.

장옥경이 그렇듯 소월혜 역시 혼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습과 전통에 반감이 있던 인물이 아니다. 좋은 가문에서 유교적 교양을 함양하며 자랐고 예법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인물들로 적법하게 보통의 혼인이 행해졌다면 크게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혼인과 관련된 부조리하고 불쾌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적 삶을 침해하자 혼인 생활 자체에 대해 혐의하게 되고 그런 혼인이라면 차라리 거부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당연한 혼사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혼처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유교적 교양을 함양한 그들이기에 차라리 비혼을 희구하는 것이다.

14) “쇼네 니군을 좇든 늘 벌써 이럴 줄 아라시니 엇디 새로이 놀라리잇고? 당초 니군이 디방 디 순무어스로 7득흔 공스톨 닛고 처즈톨 구헐디 부모톨 괴이고 즘이헐니 쇼네 임의 아로 디 츠미 처즈의 몸으로서 이런 뉘을 못헐고 순히 니군을 조츠니 그 위인이 실성헐 광패지인 이라, 쇼너의 명되 괴구헐고 운쉬 다천햐야 부모톨 2시의 니별헐고 조모의 은양햐시를 붓 츠와 당성햐미 의외에 니성7튼 네의 닛치 모라는 무신흐 사뉘을 만나니 이 췌 쇼너의 팔지라 놀을 원헐리잇고? 이제 니가외셔 혼서를 츠즈 가니 쇼너는 깃거햐웁스니 일성을 부모톨 뵈셔 고평히 늘그면 이만 쾌햐미 업스리니 조모는 브결업시 심너 믈르쇼셔.” (….) 운인 7자 울며 닛오디, (….) 이제 당츝 쇼제 일성을 엇디려 햐시느뇨?” 쇼제 미소 왈, “이논 적은 일이니 어미논 근심 뉘나. 타일 니 니군으로조츝 목숨을 보전햐기 어려오니 출햐리 놀을 좇디 아니면 죽히 쾌햐라.”(<쌍천기봉> 권7, 182~184면.)

15) “니군이 원니 정실을 죽이고 놀을 후실노 취햐엿도다. 니 평성의 이런 일을 측히 아더니 내게 당햐 줄 엇디 알니오? 상시 만일 스투던들 혼가지로 지닐도다.” 이쳐로 상가코 니성을 더욱 통한이 너기더라. 쇼제 츠후 무식헐 김오솔 닛고 심규의 츠쳐햐며 심시 즘연 울울햐여 수미톨 피쳐 못헐니 운이 크게 진인햐야 위로햐디, (….) 쇼제 탄석햐여 왈, “니 쫓이 니문의셔 좇지 아니믈 다햐히 너기나니 엇디 브리믈 넘너햐리오? (….)”(<쌍천기봉> 권7, 188면.)

무례한 첫만남에도 천정이라 여겨 이몽창과 혼례까지 치렀으나 갈수록 이몽창에 대한 불쾌함과 혐오감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이부에서는 소월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몽창의 절혼을 사과하며 소월혜를 머느리로 맞이한다. 이에 소월혜는 이몽창을 제외한 모든 시가 식구들에게 온화한 태도로 응하지만 여전히 원한을 풀지 못한 이몽창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며 서사가 전개되는 내내 불화한다.

[2] 공췌 청파의 안식을 정히 하고 쇼리를 나초와 곶오디, “(…) 쇼제는 첩의 당돌함을 고이히 너기지 마르시고 온순함을 힘쓰쇼셔.” 쇼시 공경하여 듯기를 못하고 안식이 처창하여 주루를 머금고 피석 디왈, “금일 옥주의 명하신 배 금옥 굶트니 첩이 엇지 봉헿치 아니며 쏘 그르믈 모르리잇고? 다만 심똥의 곱흔 쇼희 이시니 금일 옥주 안전의 고코져 하느이다. 첩의 불초하미 진실노 닐넙족지 아니하나 군즈의 하느 거동이 혼 일도 보왓 죽흔 일 업고 더욱 첩을 향하여 구는 거죄 첩으로 하여금 붓그럽게 하니 쳐이 비록 지식이 우몽하나 그 거동을 해아 리건더 첩을 저버리고 굶칠지라. 이를 생각하면 심담이 서늘하니 진실노 말하고 저 쏘도 촌 지 굶고 개유코져 밍도 업손지라. 초고로 개유치 못헿엇더니 옥주의 말씀이 이 굶트시니 엇지 봉헿치 아니리잇고?” 설파의 옥면의 눈물이 상연이 썩러지니(<쌍천기봉> 권8, 66면.)

소월혜의 동서 계양공주가 이몽창에 대한 온공한 태도를 당부하자 소월혜는 처음으로 진솔하게 내면을 드러낸다. 이몽창의 거동 하나 하나 모두 보암직하지 않고, 그가 늘상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며 언젠가 자신을 저버릴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하여 말을 섞거나 개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몽창에 대한 소월혜의 원한과 혐오, 불신의 마음은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이몽창의 정인(情人)이었던 시비 옥난이 소월혜를 없애기 위해 이몽창 전실 상씨의 아들 이윤문을 죽이고 소월혜가 간부를 위해 한 일처럼 꾸민다. 시가 식구들은 그 누구도 소월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굳게 신뢰하지만 이몽창은 홀로 옥난의 계략에 빠져 소월혜를 의심하고, 이 일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소월혜가 유배형을 받아 떠나게 될 때에도 두 사람은 불화한 상태로 이별한다.

이 사건으로 소월혜는 유배길에서 낳은 아들 경문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는다.¹⁶⁾ 다행히 죽을 위기에서 옥룡관 도사 운사의 도움으로 도관에서 지낼 수 있게 되고, 반란군을 정벌하고 돌아오던 길에 익사의 위기에 처한 이몽창을 함께 구한다. 이때 소월혜는 운사의 희생약으로 간신히 살아난 이몽창을 성심성의껏 간호하지만 이몽창이 회복되어 친압하려 하자 여전히 냉담하게 대한다. 소월혜는 옥난이 벌인 사건에서 이몽창이 보인 태도를 보고서 “비록 타일 경스의 도라가나 다시 부부지의를 펴 유즈싱녀허를 원치 아니호”였고,¹⁷⁾ “임의 평심 동낙을 아니려 덩”한다.¹⁸⁾ 심지어 남장 상태에서 유랑 중에 만난 험객이 서매(庶妹)로 칭혼하자 이몽창을 가칭(假稱)하여 정혼하고, 훗날 자신을 대신할 첩으로 삼게 하려 한다. 이처럼 소월혜는 이몽창과 부부로서 지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채 이후부터는 이몽창과 거리감을 확보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몽창이 거의 완쾌될 무렵 소월혜에 대한 누명이 벗겨져 해배 교지가 내린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함께 경사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소월혜는 이몽창의 친압에 “의시 더욱 촌 지 궂고 증분히미 극흔지라”,¹⁹⁾ 남편과의 동행이 싫어 이를 거부하고 경사까지의 먼 길을 이몽창 몰래 홀로 나선다. 다음날 소월혜가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이몽창은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본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소월혜를 ‘괴물’이라 일컬으며 짹박한다. 한편 소월혜는 그런 이몽창을 애써 피해 다닌다.

이몽창은 자신을 멀리하는 소월혜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간계에 놀아나 소월혜를 의심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언행에는 언제나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이몽창의 분노는 소월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월혜는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거칠게 강압하는 이몽창에게 도무지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 이 부부의 갈등에 대해 당대 윤리 의식과 달리 애정 욕망을 자유롭게 펼치

16) 소월혜는 작품 내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수난을 당하는 여성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시광(2010), 앞의 논문 참고.

17) <쌍천기봉> 권11, 22면.

18) <쌍천기봉> 권11, 108면.

19) <쌍천기봉> 권11, 103면.

려는 이몽창과 예법을 중시하는 봉건적 성향을 지닌 소월혜의 이념 사이 충돌로 보거나,²⁰⁾ 소월혜가 과도한 신념에 사로잡혀 남편의 불고이취의 과거를 용납하지 못하기에 화합하지 못한 것이라 보는 관점은,²¹⁾ 아내는 남편의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야 한다는 가부장적 관념을 그대로 추수한 채,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차마 발화될 수 없었던, 남편이 싫다는 감정, 혼인 생활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러한 소월혜의 내면을 간취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부부 갈등이 오래 지속되다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한을 풀고 화락하는 서사로 나아가는 대다수의 한글장편소설 주인공 부부와는 달리, 소월혜 이몽창 부부는 갈등이 잦아들기는 하지만 지기 관계가 되거나 화락하는 결말에 도달하지 못한다. 앞에서 거론하였듯 이몽창에 대한 소월혜의 원한이 <쌍천기봉> 말미, 더 나아가 후속작 <이씨세대록>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는 것인데, 이로써 보면 이몽창에 대한 소월혜의 거부감은 행복한 결말을 향하는 데 오래 등장하는 사랑 싸움, 애정서사의 흥미 요소, 언젠가 해소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끈끈하게 만들어줄 낭만적 장치 이상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월혜는 출거당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몽창으로부터 떨어진 공간, 유랑 도중 거쳐했던 옥류관, 장세걸의 후원 옥호정, 혹은 친정 등에서 지낼 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을 영위한다. 해배되어 이부에 돌아온 뒤 “문후(이몽창)로 동락을 면치 못할 줄 알은 즈못 울울흐더니”²²⁾ 소고(小故)들의 배려로 그들의 처소에서 지내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이몽창의 자취를 보지 않아도 됨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장면에서도 남편에 대한 소월혜의 거부감이 얼마나 크며 강한지 드러난다.

한글장편소설, 혹은 그것이 향유되었던 조선의 상층사회는 “녀지 구가를 바리는 놀문이 어더 잇느니잇가”²³⁾라는 계양공주의 말처럼 여성이 이혼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한 세계이며, 남편의 비례(非禮)를 간언할 수는 있어도 남편이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세계이다. 자신을 냉안멸시(冷眼蔑視)하며 동

20) 장시광(2010), 앞의 논문, 222면.

21) 구선정, 앞의 논문, 433면.

22) <쌍천기봉> 권12, 20면.

23) <쌍천기봉> 권18, 66면.

락(同樂)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인의 예가 아니라며 꺾박하는 이몽창에게 “이 말의 다드라는 말을 흐고저 하나 받치 못혀여 다만 정식 특연”²⁴⁾할 수 밖에 없는 소월혜의 고집스럽고 답답해보이는 태도는, 어쩌면 규방의 예법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감히 발화될 수 없었던 규방 여성의 감정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⁵⁾

이토록 높은 강도의 거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혼의 삶이 가능했다면 소월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 고층 속에서도 혼인 생활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여타 소설의 중심인물과 달리 소월혜는 혼인 생활 자체를 회의하며 끊임없이 그 생활에서 벗어날 궁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소월혜의 감정은 발화되지 못하기에 심적 고통이 풀릴 실마리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이몽창을 거부하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을 발화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소월혜의 이념을 추수하는 성향이 드러난다고 생각되는데, 유교적 교양을 훌륭히 함양한 여느 여성들처럼 소월혜는 여도(女道)에 어긋나는 감정과 욕망을 발산할 방법을 갖지 못한 것이다.²⁶⁾ 그렇게 내면에 쌓아두기만 하니 원한이나 혐오감 따위가 해소될 여지를 얻지 못한 채 남편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거나 화합할 수 없었고, 이를 전혀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이몽창의 강압적 태도에 소월혜의 혐오감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던 것이다.²⁷⁾ 이 과정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속 시원히 보여주지 않는 <쌍천기봉> 서사는, 당대 정면으로 조명되지 못했

24) <쌍천기봉> 권12, 40면.

25) 서정민은 대하소설 속 여성들이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스스로에게 비례의 혐의를 더하지 않을 선택이기 때문이라 한 바 있다.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9~20면.

26) 탁원정은 <쌍천기봉> <이씨세대록> 연작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분노에 대해 연구하며 소월혜가 자존심 문제로 이몽창에게 분노하였고, 이를 냉대나 자신의 몸을 상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였다고 논의하였으나, 오히려 소월혜는 단 한번도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피를 토하는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신적 문제는 신체적 징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신체화’(somatization)라고 한다. 이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 혹은 감정 상태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탁원정(2015), 앞의 논문, 224~234면; APA,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학지사, 2015, 333~345면.

27) 반면 주지하다시피 한글장편에서 배우자에 대한 남성인물의 혐오감, 원한 등의 감정은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이몽창 역시 자신에게 냉담한 소월혜를 ‘괴물’이라 표현하며 비난하거나, 잠자리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제엽에 대한 혐오감을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던 규방여성의 감정과 욕망, 남편에 대한 혐오, 남편과 아주 분리된 삶 혹은 혼인과 무관한 삶에 대한 바람을 담아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III. 도교적 사유에서 비혼 가능성: <보은기우록>, <임화정연>

한글장편소설에서 장옥경과 같이 일부다처의 상황을 꺼리거나 소월혜와 같이 남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친정에 의지하며 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잠시 별거하는 여성들은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유세형의 패행이 극심해지자 태후의 노후를 보살핀다는 핑계를 대며 황가로 돌아가 5년여 간을 자신의 학문적, 정치적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린다. 진양공주는 그 기간이 지나고 시가에 돌아가 유세형과 화합하게 되지만,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이나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남편과 시가를 떠나 독자적 공간에 거처해 살기도 한다. 설초벽은 남편이 원위 남부인을 소대하며 자신만 찾는 상황을 꺼려 시가 근처 장원각을 지어 거처하고, 충효혜 역시 원위 화순공주와의 쟁송상황을 꺼려 성의궁에 따로 살림을 차려 지낸다. 그러나 이들이 혼인 자체에 대한 거부감, 회의감을 내보인 것은 아니며, 별거 이후에도 시가 혹은 남편과의 인연을 이어가기에 비혼을 회구했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쌍성기봉>의 여성들 역시 진양공주 등의 처지와 속내를 공유하면서도 다른 작품 인물들에 비해 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싶은 바람을 훨씬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혼인 자체에 대한 강한 회의감까지 드러냈다. 한글장편소설은 혼인 이후 여성들 삶의 고단함이 폭로된 장르이기도 하지만, 혼인은 절대 폐할 수 없는 인륜대사라는 인식이 강고한 장르이기도 하다. 외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당사자 내면의 문제로 혼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세계이다. 그런 세계에서 여성 주인공 장옥경과 소월혜는 혼인을 회의하고 거부하고자 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비혼의 삶을 살지 못한다. 혼처가 분명하고 양가에서 모두 독촉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혼인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장옥경은 다행히 자신을 알아주는 계양공주를 만나 걱정을 말끔히 씻고 혼인 생활에

순응하지만 소월혜는 평생 남편에 대한 불평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능한 남편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혼인 생활을 버틴다.

장옥경, 소월혜가 유교적 예법에 종속된 상층의 여성이 아니었다면 비혼의 삶을 선택했을지 모른다. 혼인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들이 마음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 외부 요인에 대한 호오(好惡)가 뚜렷했고, 그에 따라 혼인 생활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각했으며, 그러한 마음을 언행으로 드러냈다. 장옥경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 단호하게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 소월혜는 남편에 대한 혐오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할 수 없었으나 가능한 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고자 최선을 다했다. 사대부 가문의 여성으로서 혼인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는 문화에 강렬히 대항하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안해내지는 못했어도, 이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쉽사리 포획되지 않는 감정과 의식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중심인물이 아닌 반동인물 혹은 보조인물군에서 비혼을 실현한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도교적 공간에서 비혼의 삶을 실현한다. <보은기우록>의 설소아, <임화정연>의 석가월, 조옥연 등이 그들이다.

설소아는 각로 가문의 딸로 위연청과 혼인하려는 마음을 품고 남장을 한 채 위부에 찾아가 구애한다. 그러나 첫눈에 김새를 알아챈 위연청이 설소아에게 그 비례함을 꾸짖고 여도를 가르치니 설소아가 자신의 비례한 행동을 반성하여 혼인을 포기하고 선가에 귀의할 뜻을 갖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는 그 청정한 마음을 기특해하면서도 그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 설소아를 불러 위연청에게 다시 혼인시켜주겠노라 타이르지만 설소아는 스스로 종부(從夫)할 면목이 없다면서 이미 속세에 미련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지선(地仙)이 된다.

설소아의 경우 스스로 훼손한 일을 혐의하여 위연청에 대한 수절의 의미로 혼사를 폐한 것처럼 보이나 그 내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위연청이 비록 년소하나 신을 금슈지형으로써 인도에 도라가게 하니 츠는 중싱훈 아버와 스승이라, 성피 신으로뻘 오히려 저를 슈의훈는가 의심하시니 여차 즉 턴후의 아버로뻘 친압하는 혐의 잇스며 스승을 슈절하는 네도 잇스리잇가. 다만 신이 몸을 더로오미 업스나 므음을 더러였는지라, 지기 잇는 사롬인즉 신을 의심치 아닐 거섯오, 후 관디훈 남지 회과후를 용셔후나 껌이 차마 안연이 부

덕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못했으니 너지 중부홀 면목이 업슨 즉 무슴 심세지나 이 이새며 이를 관겨히 아니 너긴즉 신이 또 감심하여 조츠를 불원호옵나니 임의 청한호를 어더 기리 깊히 드러시니(<보은기우록> 권16, 206~207면.)

설소아는 황제에게 위연청이 자신을 금수지행(禽獸之行)에서 인도(人道)로 돌아가게 한 아비이자 스승이라며 그를 위해 수절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회과(悔過)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남자가 있어도 자신이 원치 않는다면 이미 청한(淸閑)함을 얻었다고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 비혼을 선택하고 여선(女仙)이 되는 과정에서 여도(女道)를 어긴 행위와 그것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소아는 그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애정과 혼인 문제를 초월한 삶을 원하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했던 것이다.²⁸⁾

한편 <임화정연>의 조옥연은 남편 여정옥이 일찍 사망한 후 시가에서 시모 소씨의 괴롭힘을 오래도록 받는다. 그러다 심지어 여정옥의 동생 여중옥과 음란한 관계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이후 다행히 누명은 벗겨지나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 자결을 시도했다가 회생한 뒤 몽사(夢事)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도가에 귀의하기로 결심한다. 석가월의 도움으로 천서와 약을 얻어 도술을 터득하고 태자의 병을 고친 뒤, 친정과 시가에 허락을 구해 출가하고 천자가 하사한 도관 조천관에서 여생을 마친다.

조옥연은 오랜 시간 시가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박대를 받다가 몽사를 얻고 도교에 귀의했고 그 이후에도 시가와 인연을 이어가 온전한 비혼의 삶을 실현했다고 하기 어렵지만, 규방의 삶, 혼인 관계의 삶을 폐하고 그것을 벗어난 삶을 구축했다. 설소아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질서에 따라 여도를 지켜야 했던 상층 가문의 여성이 자발적 의지로 그 질서를 거부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혼인을 하고서 남편 사별 후 시대를 떠난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좁은 의미의 비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과 달리 남편 사후에도 그 관계 속에 종속되었던 조선 상층 여성의 처지를 고려해볼 때 조옥연의 결단은 오늘날 비혼의 의미와

28) 최수현은 설소아의 결정은 주체적인 것으로, 당대 사회가 규정한 절(節) 관념을 넘어선 것이며, 그에게 있어 연청에 대한 사랑은 이전에 갈망하던 사랑이 아니며 더 이상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최수현(2005), 앞의 논문, 79~80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시가에 종속된 이전의 삶을 벗어나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정에서 독립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관에 다녀온 여성들이 조옥연의 삶에 대해 한마디씩 의견을 내는 장면에는 혼인 관계를 벗어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인다. 후사 없이 외롭게 살고 죽는 것을 가련하다 여기기도 하지만, “너염 너지 그릇 무식혼 당부를 만나 신세 불평호여 췌게 스느니 출하리 인간을 사절호고 도시의 뒤흠 쓰로미 편하리라”²⁹⁾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바, 혼인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선택지에 대한 여성들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혼인 관계를 벗어난 삶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층 여성에게 조옥연은 대안적 삶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상층 여성은 아니지만 비혼의 삶을 선택한 과정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임화정연> 석가월의 사례도 잠시 살펴보자. 석가월은 정연낭의 시비로, 늑혼의 위협을 피해 유랑 생활을 하는 정연낭과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한 인물이다. 정연낭의 정혼자인 임규가 과거에 급제하고 황제가 둘의 혼사에 얽힌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자 임규에게 정연낭을 비롯해 그와 인연이 있는 세 명의 여성을 처로, 정연낭과 고생했던 네 명의 시비는 첩으로 삼도록 명하는데, 석가월은 정연낭을 의식해 이 사혼의 명을 거부한다. 그러다 임규의 첩 양씨가 석가월을 모함하자 그 구차한 처지를 혐의하고 속세를 떠나 출가할 것을 결심한다.³⁰⁾ 이후 스승을 만나 도술을 배우고 다시 임부에 돌아와 허락을 구한 뒤 도가에 귀의하여 일생을 마감한다.

석가월은 사혼 명이 내렸을 때부터 임규의 여러 처첩 중 한 명이 되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다 양씨의 모함에 빠질 위기가 닥치자 미련 없이 임부를 떠날 결심을 하고 천하 명승지와 고적을 다니며 완상한 뒤 도력이 높은 스승을 만나 출가하기로 한다.³¹⁾ 기실 석가월은 처음부터 임부에 계속 있다가는 꿈쩍

29) <임화정연> 67권, 22면.

30) “가월이 교요히 누어 만복스랑호미 양시의 불초호미 부녀의 늑혼 형실이 업스니 투협공궁호미 티심흐나 규근의 조강통회오 즈네가즈 삼부인 버금의 잇거늘 즈개 비록 권이 들흐나 절노 더브러 상하의 층등호미 잇는다라. 셔의호 죄를 적발호미 가치 아니호고 상세 더욱 근니 양시를 후디치 아니호 가온디 이 일을 변백홀디디 맞치 권통을 자뢰호 갖터여 가치 아니코 부인이 불안이 아라실 거시니 만만불가호고 인분호여 잇고져 호나 이런 일이 년속호여 쫓디 아니면 즈개 괴로이 건디여 능히 보신히 길히 업술 거시오, 더욱 상세 즈가를 당당이 쇼설노 명호여 그 뜻이 구드니 맞춘디 면치 못홀디라. 개연이 세스를 사절호고 어즈러운 흥진을 하디호여 믿음을 청정이 호고 시비의 버셔나 청풍명월이 즈죄를 붓쳐 물외의 한가호 몸이 되고져 뜻을 결호미” <임화정연> 권36, 50~51면.

없이 임규의 첩이 될 처지를 꺼리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고 규방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지향했던 것이다. 정연당의 생각처럼 석가월은 “몸이 비록 하류 으너지나 뜻이 흰출하여 대당부의 풍치오, 호호히 널스의 건강하미 잇서 구초치 아니”하며 “난쳐흔 가등의 머므러 사름의 식기흔를 밋지 아니려” 하는 인물로,³²⁾ 양씨의 모함은 출가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뿐 애초에 첩으로서의 삶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³³⁾

비혼의 삶을 실현하는 설소아, 석가월, 조옥연은 중심인물이 아니며, 그들의 서사는 작품 전체에서 보조서사로 기능한다. <보은기우록>이나 <임화정연> 역시 유교적 예법을 준수하는 여성 주인공의 삶이 중점적으로 전개되지만 비혼을 선택한 여성의 등장은 특기할 만하다. 여전히 장편소설에서 유교적 질서를 바탕한 가족관계 형성이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고, 그것을 정면에서 비판하거나 탈피한 서사가 전개되지 않더라도, 그 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이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는 한글장편소설에 도교적 요소의 개입이 확장되며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유교적 사유 안에서는 가족, 가문의 질서와 효(孝)와 열절(烈節) 같은 가족 윤리를 벗어난 삶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도교적 세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에서 여성인물의 비혼 생활은 도관과 같은 도교적 세계에서 이뤄진다. 한글장편소설에 도교적 사유가 수용되고 도교 화소의 긍정적 기능이 확장되면서 여성인물이 생활하고 활약할 수 있는, 속세와 분리된 동시에 가문과도 분리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고, 여성인물이 잠시 머물며 도술을 습득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비혼의 삶이 펼쳐진 공간으로까지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³⁴⁾

31) “일이 년을 표류하여 텃하 명승디처를 상고하여 태스 천의 고적을 완상하여 흥금을 쾌히 호고 심산도봉 높흔 스성을 만나거튼 출가하여 다시 흥딘의 괴로오몰 보디 아니” <임화정연> 36권, 57면.

32) <임화정연> 36권, 55면.

33) <임화정연>의 석가월처럼 시비와 같은 하층의 인물이 비혼의 삶을 선택하는 설정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석가월 서사는 작품에서 비중이 높고 그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 내면이 작품에 자세히 그려져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김동욱은 『임화정연 연구』에서 조옥연과 석가월의 서사에 대해 독신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증명하며 <임화정연>이 남녀 결연에 대해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동욱, 앞의 논문, 132면.

34) 허순우는 석가월과 조옥연을 주목하며, 삼대륙 국문장편소설을 비롯한 많은 소설에서 여성의 고난에 대해 인내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데 반해, <임화정연>은 도교 세계로 출가하는 여

IV. 조선 현실에서의 비혼

허구적 창작인 소설 안에서 상층 여성의 비혼에 대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유교적 질서, 사유 내에서는 비혼의 삶은 불가능한 것, 부재하는 것이었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도교적 요소가 확장되면서 비로소 속세와 분리된 환상적이고 긍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서야 여성인물이 혼인과 무관한 새로운 삶, 대안적 삶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작품들이 향유되었던 조선 사회에서 비혼은 어떤 의미였으며 실제 어떤 양상을 띠었을까.

조선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충, 효, 열을 강조한 삼강오리를, 그 중에도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를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았다. 자손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면서 선조들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효의 중심이 되었고, 따라서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 첫째로 중요한 것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잇는 것으로, 혼인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장려되었다. 유교적 효 사상과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한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혼기가 지난 독신자들의 혼인을 장려했는데 조선 초부터 꾸준히 가난한 집안의 독신자를 위해 혼례비용을 대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조대에는 2년마다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이들의 혼인을 독촉했고, 궁핍하지 않으면서도 삼십이 넘도록 혼인시키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가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죄로 다스리기도 했다.³⁵⁾

특히 사족 여성의 혼인에 대한 규정과 논의가 많은데, 『경국대전』에도 사족의 딸로 30이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경우 곡식과 옷감을 내리고 가난하지 않음에도 혼인하지 못한 딸이 있으면 가장을 엄중히 논죄한다는 규정이 있다.³⁶⁾ 이러한 규정은 논죄보다 구휼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되었으며, 이후 대상 범위가 넓어져 성별과 신분을 막론하고 혼기를 놓친 사람의 혼례를

인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냄으로써 관습을 깨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효, 열절의 수호와 같은 유교적 대안을 넘어 도교적 상상력의 기반 위에서 파격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다고 논하였다. 허순우, 앞의 논문, 150~157면.

35)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53~54면.

36)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가 30이 가까우면서도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는 본조(本曹)가 왕에게 보고하여 자재(資財)를 헤아려 지급한다. 그 집안이 궁핍(窮乏)한데까지 이르지 아니 하였으면서도 나이가 30세 이상이 차도록 시집가지 않은 자는 그 가장(家長)을 엄중하게 논죄한다.” <혜홀(惠恤)>, 『예전(禮典)』, 『경국대전』, 동방미디어 사이트 (<https://www.koreaa2z.com/viewer.php?seq=55>)

돕는 정책으로 확산된다.³⁷⁾ 혼인이 당연한 사회에서 혼기가 차도 독신인 사람은 그야말로 혼인을 ‘못한’ 것으로 구휼의 대상이 되고, 국가는 불쌍한 백성을 보살피는 시혜적 차원에서 혼인장려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토록 혼인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은 비정상적이며,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여성의 비혼은 나라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일이라고까지 비화되곤 하였다.³⁸⁾ 대다수 여성들 역시 홀로 생계를 잇기 힘든 현실적 상황과, 비혼자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혼인을 삶의 필수적 요소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혼기를 놓친 여성의 한탄이 담긴 「노처녀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가 이혼한 여성의 자괴감이 담긴 「신가진」 등의 규방가사에는, 어엿하게 혼인하여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편입되어서 보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의 바람,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 등 당대의 통념에 기반한 인식과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³⁹⁾

그럼에도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그들은 대개 종교에 귀의하는 방식으로 비혼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는 승유억불 정책에도 불교를 숭상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기에 출가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궁중의 빈, 후궁, 궁녀 및 사족의 부녀자 등 상층의 여성들이 남편 사망 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⁴⁰⁾ 그런데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이 출가한 일들에 대한 성도가 실록에서 보이는바 비혼 여성이 여승이 된 경우도 꽤 있었던 듯하다.

37)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정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제20권 제3호, 2004, 10면.

38) “나이 많은 처녀로서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름이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안팎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 <대전>에 의해서 적절히 자재(資材)를 지급하게 하여 혼가에 때를 잃지 말도록 하라.”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기미 5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이처럼 조선시대 늦도록 혼인하지 못한 처녀가 화기를 상하게 하여 나라에 재앙이 된다는 논의가 많았다. 관련 논의는 정지영, 앞의 논문(11~16면) 참고.

39)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어문논집』 제80호, 민족어문학회, 2017) 참고.

40) 이에 대해서는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의 성격과 역대 주지」(『여성과 역사』 제22집, 한국여성사학회, 2015) 참고.

성종 때 처녀 권씨가 삭발 여승이 된 일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하는데, 만약 그것이 가족의 강권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가족을 논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⁴¹⁾ 혼기가 찬 여성의 혼인을 방기한 것, 출가하도록 부추긴 일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림의 발언권이 강화된 성종대에 특히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이 출가하는 풍조에 대한 논란에 비혼 여성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처녀로 여승이 된 자를 환속(還俗)하게 하라거나 처녀를 여승이 되게 한 가정의 가장을 처벌하라는 주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⁴²⁾

실제로 출가한 여성들이 어떤 사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불교 사찰이 독신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의 여성들이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⁴³⁾ 남편을 잃은 왕실과 사대부가의 여성들, 『신가전』과 같은 가사에서 보이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 시집살이요에 나타난 고된 시집살이에 의해 도망치듯 떠난 여성들에게 출가는 혼인 생활 이외의 선택 가능한 대안적 삶이었듯,⁴⁴⁾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출가의 길은 당대 현실에서 혼인 이외 가능한 삶의 선택지였을 수 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조선시대 여성이 속세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간여와 방해가 가해졌을 터인

41) “‘신이 들건대, 이 여자는 어머니를 잃고 그의 언니인 이우(李瑀)의 아내의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이우의 아내가 자기 사위[女婿]를 맞이한다고 칭탁(稱託)하고, 그의 오라비인 권이(權耳)의 집에 옮겨 두었는데, 생원(生員) 민전(閔愼)의 아내인 홍사당(洪舍堂)이 와서 머리를 깎으라고 권유하였다 합니다. 또 들건대, 이우의 아내가 부모의 전택(田宅)을 모두 차지하여 그 동복(同腹)으로 하여금 빈궁(貧窮)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홍사당이 머리를 깎도록 권유하고, 이우의 아내가 동복을 구제하지 않은 죄를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臣聞此女喪母, 寓居姊李瑀妻家, 瑀妻托以迎己女婿, 徙置兄權耳家, 生員閔控妻洪舍堂來誘剃髮. 又聞瑀妻合執父母田宅, 致令同產貧窮至此. 洪舍堂誘令剃髮, 李瑀妻不恤同產之罪, 不可不鞫.”)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 2월 29일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2029_002)

42) “그래서 처녀와 과부가 머리를 깎는 일이 서로 계속되어 끊이지 않으며, 혹은 선(善)을 권장한다고 하고, 혹은 산에서 놀이한다는 핑계로 친구를 모으고 때를 지어 중들과 섞여 있으므로,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가 그 가족(家俗)을 어지럽히는 사례를 면치 못합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국가에는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는 해만 있는 것입니다.(故處女寡婦剃髮者相繼不絕, 或憑勸善, 或托遊山, 邀朋結隊, 與僧雜處, 未免有淫穢之行, 敗亂其家俗也, 凡此數事, 無益於國而有害於民.)” 『조선왕조실록』 성종 9년 11월 30일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911030_002)

43) 정지영, 앞의 논문, 26면.

44) 장정수, 앞의 논문.

데 불교 사찰이라는 종교적 공간은 독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편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 조선후기에 이르면 억불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불교에 대한 사족 여성의 친연성은 전과 같지 않게 된다. 비혼 여성, 특히 사족 여성의 출가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게 된다. 상층 여성이 즐겨 읽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인물이 불교 사찰에 의탁하는 일은 논란의 쟁점으로 그려지거나 부정되는 금기로 서술되기도 하고, 규방가사에서 불가에 귀의하는 여성들이 불우하거나, 정상적 삶에 실패한 것으로 형상화되는 현상 역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주목한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입화정연> 역시 18세기 이후 창작되었다고 알려진 작품들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향유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여성 스스로 비혼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례가 발생한다. 18세기 후반 등장한 천주교 여성신자 가운데 동정을 지키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 위장하거나 동정결혼을 한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천주교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계율로 삼고 있지 않지만, 천주를 지극히 섬기고 바른 말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다. 동정에 대한 선호는 성경에서부터 보였고 이후 신앙생활을 위해 독신생활을 하는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되며 그 전통이 이어졌다. 조선의 초기 천주교회에서 널리 읽힌 책 『칠극』에도 동정을 숭양하는 논리가 펼쳐져 있는데, ‘방음(坊淫)’에 대한 내용 가운데 정결한 삶을 세 단계로 나눈 부분이 있다. 한평생 처녀로 사는 것, 과부로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것, 한 배우자에만 충실한 것의 순으로 완전한 동정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천주교의 동정관이 조선의 신자들에게 전해지면서 비혼을 선택한 여성신자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만 당대 조선의 현실에서 특히 사족 여성이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기에 이들은 과부로 위장하거나 같은 종교적 신념을 지닌 상대와 혼인하여 동정부부로 살아갔다.⁴⁶⁾ 이들 존재는 1801년 신유박해

45) 천주교의 동정 선호에 대한 내용은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육중편지』(민음사, 2014, 23~27면.)를 참고하여 정리함.

46) 대표적인 동정부부로 이순이와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병설의 앞의 책 참고. 본고에서는 과부로 위장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때 정체가 드러나며 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는데 그에 관한 기록이 정부 측에서 신유박해의 신문 과정을 기록한 『사학징의』와, 천주교회 측에서 박해 내력을 기록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등에 남아 있다.

윤점혜, 정순매, 김경애, 이득임, 조도애 등이 혼인을 하지 않고서도 쪽을 지고 과부 행세를 한 여성들인데, 이들의 주요 죄목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것[無婚]’이 들어가 있다.⁴⁷⁾ 다음은 윤점혜 공초의 일부이다.

당초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과부라고 자칭하는 것은 사학하는 여자의 상투적인 예이다. 거리를 떠돌고 남의 집에 머물러 살면서 처녀도 아니며 과부도 아닌데 어떠한 모양을 취했는가? 남녀의 혼인은 인간의 대륜인데 곧 젊은 여자가 이러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행동을 하여 틀림없이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한 것처럼 했으니, 이 어찌 천지간에 용납될 수 있겠는가?⁴⁸⁾

이를 보면 당시 천주교 신자를 색출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과부로 위장한 비혼 여성의 사례가 꽤 있었다는 점과 위정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레 역시 “조선에서는 어떤 사회 계급에서든지 처녀를 시집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한 일이다. 특히 품위 있는 계급의 집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으며,⁴⁹⁾ 윤점혜에 대해서도 “윤점혜(尹占惠)라고 불린 두 번째 여인은 다른 여러 죄목 중에도 특히 과부라고 자칭하며 동정(童貞)으로 있었다고 고발되었”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⁵⁰⁾

혼인을 통해 유교적 가부장제를 이루려는 위정자들은 천주교 여성신자들이

47) 주요 죄목은 본가를 떠나 가출하여 서울로 가는 것, 천주학에 깊이 빠지는 것, 결혼하지 않은 것,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거거지로 과부라 하는 것, 가거의 남녀가 함께 모여 집회하는 것, 남녀가 안방에 모여 동석하는 집회를 갖는 것, 세례를 받은 뒤 천주교회 성인남녀의 이름을 따서 본명을 갖는 것, 주부모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것,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천주학을 강론하여 백성을 유혹하는 것 등이 있다. 김영옥, 『한국천주교여성사』(I), 한국인문과학원, 1984, 139면.

48) “初不適人，稱以寡女者，邪學之女，例多此套，而流離衢路，住接他家，非處女非寡女，做得何許見樣，是喻男女居室，人之大倫，乃以眇少一女子，爲此傷風敗俗之學者，必有不嫁如嫁之故，此豈容於天地之間乎？”『占惠』，『邪學懲義』，불감문화사, 1977, 108면.

49) 샤를르 달레(Ch. Dallet), 안응열·최필우 역,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원, 2000, 535면.

50) 샤를르 달레(Ch. Dallet), 위의 책, 510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들을 괴이하고 불온한 존재로 여기며 때론 과 폐속의 행위로 단죄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던 여성신자들은 과부의 수절을 중시하는 조선의 가부장제의 속성을 역이용하여 과부로 위장하여 비혼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⁵¹⁾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특수한 사례일 것이다. 조선 정부의 단속에 걸린 천주교 신자들은 결국 사형이나 유배형 등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조선의 질서에 반하는 반역죄로 여겨졌던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이러한 위협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혼, 위장 과부, 천주교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는 순교의 결심이 동반된 신앙과 같이 강력한 동인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여성들이 혼인을 벗어난 인생을 개척할 수 있었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혼에 대한 회구는 존재했으되 그것은 많은 대가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감히 추구할 수 없는 삶의 양태였던 것이다.

윤점혜와 같은 이들은 혹독한 심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고수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조선사회는 이들을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강상윤리를 파괴하는 중범죄자로 엄혹하게 다뤘지만 기실 그들 대부분의 행위 동기는 그리 거창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부로 속이며 비혼의 삶을 살았던 것 역시 유교적 가부장제의 가치와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불합리한 혼인제도에 대해 저항하고 도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 종교적 신념을 일상에서 실현하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자유의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⁵²⁾ 단지 그들이 따른 신념을 당대 위정자들이 인륜을 위협할 위험천만한 중범죄로 간주하며 극단적으로 처단했기에 그들의 바람이 소박한 데에 그칠 수 없었을 뿐이다.

회구의 장에서 비혼의 삶을 회구했던 여성인물들 역시 혼인을 거부한 이유가 거창한 무엇, 기존 관습과 질서에 대한 의식적 저항이라 보기는 힘들다.

51) 박민예, 『신유박해를 통해 본 천주교회 내 과부 신자와 위장과부』, 『서강인문논총』 제54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69면.

52) 박민예는 초기 조선교회 동정녀가 출현한 것은 교조적인 성리학에 따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결혼관에 대한 도전이며 근대적 여성의 도래라는 지점을 강조한 선행연구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가부장제를 하나의 방패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그 질서의 여러 지점을 교묘히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박민예, 앞의 논문, 70면.

<보은기우록>의 설소아의 경우는 어떤 깨달음의 과정이 개입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쌍천기봉> 장옥경과 소월혜는 혼인 생활에서 예견되는 구차한 갈등으로 점철될 일상을 거부하고 평화롭던 종전의 삶을 지속하고 싶었으며, <임화정연>의 조옥연은 시가에서 겪은 오랜 고난을 종식시킬 대안적 삶이, 석가월은 임규의 여러 처첩 중 한 명이 되어 구차히 사는 것을 벗어나 규방 바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대의 질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부조리함을 자각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도전하고자 비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비혼을 회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감각에서 소박해 보이는 그 바람은 조선 사회에서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기실 그런 바람이 스스럼 없이 용인된다면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와 신분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기도 했다. 혼인에서 자유로워진 여성은 가부장적 체제 내로 구속하고 통제하기 어려울 터이며, 신 앞에 인간의 평등함을 설파하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은 남녀차별, 신분차별의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의 질서는 여성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현대적 관점에서서는 지극히 소박해 보이는 욕망에서 비롯된 비혼 회구가 궁극적으로는 당대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비혼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혼이 삶의 한 양태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비혼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동력은 결혼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와 저항보다 자신이 체득해 온 문화적 가치체계와 행위양식의 연장선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⁵³⁾ 하지만 비혼의 개념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부터 여성 개인의 삶을 독립적인 것으로 세우려는 여성주의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희생을 요구하는 젠더수행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고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비혼을 선택한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비혼은 정상가족론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조선과 현대사회의 간극은 크고 비혼의 양상과 그 의미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혼은 개인의 욕구와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

53) 박수민, 앞의 논문, 96면.

과 관련되어 있고 기존의 질서와 관습의 불합리한 측면을 드러내고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각기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어도 비혼을 회구하거나 실현한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의 부조리를 인지하고 대안적 삶을 꿈꾸게 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의 여성인물에게 나타난 비혼에 대한 바람과 그 바람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작품이 향유되었던 조선사회 비혼의 양태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추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중심인물 서사를 통해 그러한 지점이 강조된 장르인 한글장편소설에 당대 부정되고 불온시된 비혼에 대한 회구가 드러나 있었는데, <쌍천기봉> 중심인물인 장옥경, 소월혜에게서 비혼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간취되었다. 이들은 유교적 교양을 함양한 높은 신분의 여성인물로 결과적으로는 유교 질서의 혼인제도에 편입되지만, 진지한 태도로 강렬하게 비혼의 삶을 희망했다. 한편 중심인물이 아닌 반동, 보조인물군에서 비혼을 실현한 여성이 있었는데 <보은기우록>의 설소아, <임화정연>의 석가월, 조옥연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혼인의 삶을 거부하고 도교에 귀의하여 독자적인 삶을 살아갔다.

한글장편소설은 상층 가문 간 혼인을 둘러싼 다양한 서사가 전개된 장르로, 유교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 고층이 자세히 형상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질서를 부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장르라 평가된다. 그러나 적극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주체화되지 못했어도 <쌍천기봉>의 높은 유교 교양을 함양한 중심인물에게서 혼인 자체를 회의하고 그것과 무관한 인생을 설계하려는 의지가 보였고, <보은기우록>, <임화정연>같이 도교적 요소가 편입, 확장된 작품에서 유교 질서 밖의 도교적 공간이 설정되고 대안적 삶이 그려졌다.

조선은 소설 속 세계와는 달리 비혼을 불운하거나 불온한 것으로만 취급했던 사회이다. 특히 주체적이며 적극적 태도로 비혼을 선택한 천주교 신

자들은 그 삶을 살기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했으니, 순교의 결심이 동반될 만큼 강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고서야 비혼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없던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비혼 욕망은 소설 속에 투영되었고,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것은 부정되지 않았다. 그 바람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변 인물에게 이해와 공감을 받고, 혹은 환상적 설정이 가미되어 비혼이 정당하게 인정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비혼을 문제적 현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 등 외부요인에 의해 결혼을 안/못하는 현상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사회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없는 불온한 존재인 것이 아니며, 그 삶이 실패하거나 결핍된 인생인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많은 비혼자들이 사회적 유대감과 지인과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알 수 있듯 비혼의 삶이 반드시 고립된 독거 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입화정연>의 조옥연과 석가월이 비혼의 삶을 선택하며 뜻이 맞는 여성들을 모아 독자적인 삶을 안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창조했듯,⁵⁴⁾ 비혼은 관습에 개인의 삶이 재단되는 것을 벗어나 각자의 감정과 욕망을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안하는 삶의 한 방식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소설에서 비혼 욕망을 읽어내는 것은 오늘날을 반추하는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4)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입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347면.

참고문헌

1. 자료

한중연본 <쌍천기봉> 18권 18책.

한중연본 <보은기우록> 18권 18책.

필사본 <임화정연> 72책.

한국교회사연구소, 『사학정의』, 불감문화사, 1977.

샤를르 달레(Ch. Dallet), 안응열·최필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경국대전』 동방미디어 사이트 (<https://www.koreaa2z.com/viewer.php?seq=55>).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 단행본

김영옥, 『한국천주교여성사』(I), 한국인문과학원, 1984.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APA,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학지사, 2015.

3. 논문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과 고통의 이면 - <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05~438면.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박민예, 「신유박해를 통해 본 천주교회 내 과부 신자와 위장과부」, 『서강인문논총』 제54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37~76면.

박수민,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제29집 제4호, 한국가족학회, 2017, 94~121면.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5~29면.

이성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73~112면.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 제9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153~192면.

_____,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권, 한국고전

- 여성문학회, 2010, 187~232면.
-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제80호, 민족어문학회, 2017, 5~35면.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정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제20권 제3호, 2004, 5~37면.
-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제3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213~246면.
- _____, 『<쌍천기봉>에 나타난 여성연대와 자기표현-공주혼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191~217면.
- _____,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 『고소설연구』 제4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6, 113~144면.
-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의 성격과 역대 주지』, 『여성과 역사』 제22집, 한국여성사학회, 2015, 101~132면.
-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371~400면.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여성 형상 연구 - <임화정연>, <보은기우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43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133~165면.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2002, 325~355면.
- 허순우, 『<임화정연> 속 출가 이야기의 양상과 그 함의』, 『한국고전연구』 제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127~161면.

The wish for unmarried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 Focused on *Ssangcheongibong*, *Boeungiurok*, and *Imhwajungyeon* -

Ko, Eun-im

This article examines the wishes for 'Unmarried' that appeared in the female characters of *Ssangcheongibong*, *Boeungiurok*, and *Imhwajungyeon*. In addition, this is a study that discusses the mode of unmarried in Joseon society and the meaning of it. Th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reveals the hopes of unmarried being denied and disregarded during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ain characters of *Ssangcheongibong*, Jang Okgyeong and So Wolhye, the desire for unmarried was strongly captur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women who realized unmarried in the group of reactionary and auxiliary characters. They were Seol Soah in *Boeungiurok*, Shak Gawol in *Imhwajungyeon*, and Cho Okyeon. They rejected the marriage life and returned to Taoism to live their own lives. However, unlike the world in the novels, Joseon's reality treated unmarried only as unfortunate or rebellious. In particular, Catholics who chose to be single with a proactive and subjective attitude had to be prepared for martyrdom in order to live their lives. In this social atmosphere, women's desire for unmarriage was projected into the novel, and that desire was understood and sympathized in the novel. Or, a fantastic setting was added, and unmarried was admitted proudly.

keywords: *Ssangcheongibong*, *Boeungiurok*, *Imhwajungyeo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Unmarried, Women, Joseon Period, Confucianism, Taoism, Catholic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